

## 조미김, "미국 수출관세 면제됐다" K-김 최대시장서 날개

올해 대미 김 수출 2억3천만달러 관세 15%→0%, 수출에 도움

올해 전 세계 김 수출액, 처음 11억달러 돌파 기대



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우리 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김의 인기가 높은 미국에서 15%를 부과하던 관세가 0%로 되면서 김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수산물 중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

김 수출액은 2천45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2%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액 증가율이 1~11월 누적 증가율보다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지원은 관세 면제를 주기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무관세 적용 품목에 조미김이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렛(뼈를 빌라온 살)도 무관세

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 날짜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김은 K푸드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올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지난 달까지 대미(對美) 김 수출액은 2억2천800만달러(약 3천40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지난달 대미

이현진 기자

##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유럽 SMR시장 공략 가속화

폴란드 SMR 개발사 신토스그린에너지와 SMR 개발 협력 업무협약 체결

폴란드 최초 SMR 포함 총 24기 건설 추진…유럽 6개국 확대 계획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체코, 평가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까지 SMR 사업을 확대할 계

획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폴란드 SMR 사업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부지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SGE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 시장까지 협력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은 "신토스그린에너지와의 긴밀한 협력은 폴란드와 중·동부 유럽 진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토스그린에너지 라파우 카스프루고 사장은 "삼성물산의 글로벌 원전 수행 역량과 신토스그린에너지의 SMR 사업경쟁력이 더해져 폴란드 SMR 사업의 가능성

을 높이고 유럽 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 수출입銀, 연말 맞아 취약계층에 총 12억 5000만원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총 12억 5000만원을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황기연 은행장은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황인식 사장의 열매 사무총장을 만나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후원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전국 500여곳의 사회복지시설의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과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 행장은 "수은의 후원금이 사회복지시설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은은 ESG경영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수은 노동조합(위원장 정은주)도 난치성질환 환우의 부담경감을 위해 직원 성금을 포함해 2억 5000만원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전달했다.

이송원 기자

## 하나은행, 유망 신산업 영위기업 및 미래성장기업 4500억원 생산적 금융

신용·기술보증기금 98억원 추가 출연 통해 보증비율 우대 보증서 및 보증료 지원

이호성 행장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출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지속 확대해 나아갈 것"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 98억원(보증료지원금 포함)을 추가 출연(신보 63억원, 기보 35억원)을 통해 4500억원 규모(신보 2900억원, 기보 1600억원)의 생산적 금융 분야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자

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미래성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탄소중립실천 및 지속가능성장(ESG) 기업 ▲기술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비율(90% 이상) 우

금과 기존 체결한 협약에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2026년에도 지속적인 생산적 금융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탄소중립실천 및 지속가능성장(ESG) 기업 ▲기술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비율(90% 이상) 우

대 적용된 보증서 및 보증료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출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종합대상

디지털, 스마트농업 등 현장 직무교육 강화… 인공지능 역량 제고 '호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은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이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사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

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술 기반의 학습 생태계를 조성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디지털 기술, 스마트농업, 드론, 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대폭 강화해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노력이 심사 위원단의 주목

을 받았다. 공사는 '기본-심화-전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도입으로 직원의 실무 역량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경영진 대상 '인공지능(AI)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체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직무 역량 중심의 교육체계 고도화'와 '자기주도 학습 문화 조성'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해 공공부문 인재 육성의 모범이 됐다는 평이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수상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혁신에 전 임직원이 동참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무 중심의 교육 혁신을 계속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 국민안전참여단 운영 중대시민재해 예방

중대시민재해 위험요소 신고 및 개선 제안… 총 748건 접수해 조치



고 건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활동자를 선발했으며, 선발된 12명의 우수활동자에게 총 380만원의 포상금을, 상위 6명에게 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소대교 하부의 슬레이브 누수와 벽체 콘크리트 균열 등 총 39건을 신고해 대상을 수상한 김종호 씨는 "작은 신고가 큰 안전을 만든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문규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장은 "안전을 위한 작은 관심 하나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을 적극 확대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진 기자

## LG U+, 국내 통신사 최초 '구글 AI 프로' 상품 출시

제미나이 3·나노 바나나 등 구글 AI 핵심 기능과 2TB 클라우드 저장 공간 제공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구글 AI 프로(Google AI Pro)' 제휴 상품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30일까지 '구글 AI 프로' 모바일 부가서비스 가입 시 50% 할인된 월 1만4500원에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 3와 클라우드 저장 공간 2TB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제미나이 3는 AI 모델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수학능력 시험 풀이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됐다.

'구글 AI 프로'는 ▲제미나이 (Gemini) 3 ▲Nano Banana Pro (특화된 이미지 생성 모델) ▲Flow & Whisk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 구글과 협력해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다.

또, LG유플러스 통합 앱 U+One(유플러스원)에서 멤버십 혜택인 VIP으로 '구글 AI 프로'를 설정하면 매월 4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아 월 1만 5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구독 서비스인 '유독'에서는 타 통신사 고객도 구글 원을 가입할 수 있다. 유독에서는 구글 AI 프로와 22종의 라이프 헤택 구독 서비스를 월 2만 9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구글 AI 프로와 도미노피자 25% 할인 혜택을 구독할 경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000원이 할인된 1만 9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 통합 앱 U+One(유플러스원)에서 멤버십 혜택인 VIP으로 '구글 AI 프로'를 설정하면 매월 4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아 월 1만 5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LG유플러스는 신규 부가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50% 할인된 가격에 구글 AI 프로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달 30일까지 구글 AI 프로를 모바일 부가서비스로 가입한 고객은 50% 할인된 가격인 월 1만 4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50% 할인은 최대 2년 간 유지되며, 가입 후 2년 경과 시 자동 해지된다.

이영진 기자